

봄축제 물결…남도가 설렌다

■ 전남도 주요 축제

축제명	기간	축제주요내용
함평나비축제	4.29(금) ~ 5.10(화)	나비생태관, 자연생태관, 나비날리기
여수 거북선축제	5.3(화) ~ 5.6(금)	통제영길놀이, 거북선가요제
담양 대나무축제	5.3(화) ~ 5.8(일)	대숲음악회, 공예품 만들기
보성 다향제	5.4(수) ~ 5.8(일)	녹차미기체험, 녹차만들기 체험
장성 흥길동축제	5.5(목) ~ 5.8(일)	흥길동 군사훈련, 흥길동 캐릭터 만들기
원도 장보고축제	5.6(금) ~ 5.8(일)	장보고 해신제, 청해진 해상 행진
영광 법성포단오·굴비축제	6.4(토) ~ 6.6(월)	굴비 양기, 청포머리김기, 단오씨름

완연한 봄 기운과 함께 남도 축제가 봄기지개를 켜고 있다. 항구한 봄꽃 축제를 시작으로, 불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한 남도의 지역 축제가 줄지어 열리기 시작하는 시기다.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위축됐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역사적 인물, 특산품 등을 소재로 관광객들의 발길 불ぱ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신안 둘립축제=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신안군 입장면 대광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다. 10ha(3만3000평)에 빨강·분홍·보라색 등 73가지 600만 송이가 심어진 둘립축제장은 전국 최대규모다. 주변에 풍차 전망대와 3000송이 5층 꽃탑을 배경으로 한 사진촬영은 필수다. 2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배 시간을 확인하고 인근 대광해수욕장도 둘러볼 수 있다. 부대 행사는 둘립화분 만들기, 해변 자전거타기, 둘립꽃밭 승마체험, 꽃마차 타기, 생활원예 체험 등이다.

◇함평 나비축제=명품축제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나비축제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함

신안 둘립축제·함평 나비축제 등 잇따라

“구제역·AI로 위축 지역관광 다시 살리자”

지자체, 역사 인물·특산품 소개 등 총력

평엑스포공원 일대에서 개최된다. 애와 나비 날리기, 미끄럼자리 잡기, 전통 가족 몰이 등 체험행사와 문화공연, 판매 장터 등이 마련됐으며 친환경 농업관, 더욱 식물관, 황금박쥐 생태전시관은 불거리로 가득하다.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도내 축제 평가에서도 1등 축제로 선정될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데다, 관광객도 많아보니 빨리 움직이는게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비결이다.

◇여수 거북선축제=5월 3일~6일 여수 이순신 광장(옛 해양공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45회를 맞는 축제는 ‘거룩한 희생, 뜨거운 눈물, 위대한 승리’라는 주제를 내걸고 공연, 전시, 체험행사, 유적지

순례 등 70여개의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 여행자들을 맞는다.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스토리텔링 방식을 도입한 해양문화 프로그램과 참여형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담양 대나무축제=5월 3~8일 죽녹원과 관방재림 일원에서 열리는 대나무축제도 빼놓을 수 없다. 대나무 뗏목 타기, 수상 자전거 타기 등 전통놀이는 재미가쏠쏠하다. 대나무 신산업관, 대나무 박람회장 등의 죽제품 전시도 즐길만하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대나무 생태환경 체험관에서는 대나무 숲에서 서식하는 곤충을 그림과 시로 전시한다.

◇보성 다향제=관광객들의 시

각과 후각, 미각을 유풍하는 ‘독차 축제’다. 5월 4일~8일 보성 차밭 일원 한국 차 소리 문화공원에서 개최된다. 녹차를 이용한 차·음식 만들기, 차잎 따기, 햇차 무료시음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축제기간 내내 펼쳐진다.

◇장성 흥길동축제=다음 달 5~8일 흥길동 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린다. 흥길동 군사훈련, 전통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날인 8일에는 상무대 장병과 함께하는 어버이날 축하행사도 펼쳐진다.

◇완도 장보고축제=‘해신 장보고 사랑해, 건강 완도 싱싱해’이란 주제로 5월 6~8일 완도해변공원 일원에서 열리며 장보고 역사체험, 거리극, 청해진 해상 행진 등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장보고 해적소탕 해상전투는 바다와 유품을 넘나드는 전투 장면을 연출해 특별한 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광 법성포 단오제·굴비축제=400년 전통의 법성포 단오제와 굴비를 소재로 한 축제로 6월 3~6일 법성포 숲쟁이 공원과 법성포 뉴타운에서 열린다.

창포 머리김기, 굴비 양기, 모싯잎 송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굴비요리 경연대회, 단오씨름, 그네뛰기 등 전통놀이 등 즐길거리로 가득하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14일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김양수 (주)생협물류서비스 대표이사, 오남승 세운바이오에너지(주) 대표이사 등 6개 기업 대표가 모두 319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에코산업 등 6개사와 협약

의학·신소재 319억 투자 유치

전남도가 친환경식품과 의약·신소재 등 6개 기업을 잇따라 유치하는 등 기업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1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김양수 장성군수, (주)생협물류서비스 등 6개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319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식을 열었다.

에코산업은 화순 일반산업단지 5000여m²의 부지에 67억원을 투자해 의약품 및 의약 관련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박준영 도지사는 “전남의 비교우

위 및 전략산업 업종인 친환경식품과 의약 및 신소재 등 전남도가 주구하는 친환경 녹색성장에 적합한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U대회 선수촌 재건축

현대건설, 제안서 제출

현대건설이 2015광주U대회 선수촌으로 쓰일 광주회장주공아파트 재건축 제안서를 조합 층에 전달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이날 회장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단독 시행자로 참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제안서를 조합 층에 제출했다.

재건축 제안서에는 전체 3727가구 중을, 씨제이산업은 고층 풍양면 6000여m² 부지에 농·수·공산품 포장용 골판지상자 생산 공장을 각각 짓는다.

현대건설은 화순 일반산업단지 5000여m²의 부지에 67억원을 투자해 의약품 및 의약 관련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이 제출한 재건축제안서가 조합원총회에서 통과되고 오는 6월 말까지 서구청의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면, 조합 층은 관리처분계획(조합원들의 재산가치를 평가하고 아파트의 분양과 및 토지와 건물의 지분율을 결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마지막 조합원총회를 열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이 제출한 재건축제안서가 조합원총회에서 통과되고 오는 6월 말까지 서구청의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면, 조합 층은 관리처분계획(조합원들의 재산가치를 평가하고 아파트의 분양과 및 토지와 건물의 지분율을 결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마지막 조합원총회를 거치게 된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장성 필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

주비위 발족

장성 필암서원(사진) 등 한국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화재청과 서원연합회를 주축으로 한 한국서원세계문화유산 등재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이배용·이하 ‘주비위’)는 14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등재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발족식엔 서원연합회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문화재청 국장과 등재 대상 서원이 있는 자치단체장, 서원 대표 등이 참여했다. 주비위는 본격적인 등재 운동을 담당할 공식 추진 기구의 구성은 한편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서원 9곳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작업은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과 같은 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삼공(三孔) 즉 공묘(孔廟) 공자(孔子) 사당, 공부(孔府) 공자의 집, 공림(孔林) 공자(孔子) 묘소(墓所)과 일본 도치기현의 낙코신사가 각각 1994년과 1999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순천만 소형경전철

국토부, 건설 승인

국토해양부는 14일 포스코가 순천

만 일대에서 추진 중인 소형경전철(PRT) 사업에 대한 특별건설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순천시가 2013년 4월 순천만 일대에서 열리는 세계 정원박람회에서 이동수단으로 활용할 PRT 건설 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무공해 저소음의 전기에너지로 운행되는 4~6인승의 PRT는 박람회장에서 순천만 인근까지 4.4km 구간에 건설된다. /연합뉴스

한국만평

- 김종우



작년 전남 농가소득 전국 꼴찌

기구당 평균 2763만원…부채는 2021만원 최저

지난해 전남지역 농가 소득과 부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0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의 농가당 소득은 2763만5000원으로 지난해 말 농가의 평균 가구당 소득 3212만원으로 전년보다 4.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농업경영을 통해 얻은 농업총수입은 2722만원으로 2.3%가 늘었다. 지난해 쌀값 하락과 30년만의 흉작으로 인해 미곡 수입(537만원)이 17.7%나 감소하고 한우가격 하락에 따라 축산수입(589만원)이 15.5%나 줄었다.

전남의 가구당 자산도 2억3125만 7000원으로 평균(3억7247만6000원)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문 것으로 집계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부가가치 농업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전남의 가구당 농가 부채는 2021만 6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은 2721만원이었다.

한편, 통계청은 작년 말 농가의 가구당 소득은 3212만원으로 전년보다 4.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농업경영을 통해 얻은 농업총수입은 2722만원으로 2.3%가 늘었다. 지난해 쌀값 하락과 30년만의 흉작으로 인해 미곡 수입(537만원)이 17.7%나 감소하고 한우가격 하락에 따라 축산수입(589만원)이 15.5%나 줄었다.

자사 보유 부동산 매각 공고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23-20번지

23-154, 23-216, 23-218, 23-272, 23-283, 23-284, 73-38 (계 4,787m²)

용도 일반상업지역

현 상태 인도 조건(지하 6층 구조물 존재)

문의 02)6908-7021, 7024 (인사총무팀)

*참조: 공시지가 ₩1,130,000~ ₩1,320,000/m²

신원종합개발(주) www.swc.co.kr



당신의 현장에 힘이 되어 드립니다!
지게차 임대·렌탈
한국구보다 굴삭기
광주·전남 대리점

굴삭기·지게차·판매·임대·A/S·중고매매·캐피탈

© 덕승건기(주) · 덕승물류기계
T.959-0100, 374-1686, 010-8108-2500

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이용 중 이사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이용 중 이사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